

불·탈법 부추기는 조합장 선거 개선 목소리 높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비상임조합장은 3선 연임 제한도 없어
선거운동 기간 13일 불과해 신인들 정책·비전 보여주기 힘들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2주일 남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13일)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조직을 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 혼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선거 규정조차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진 입지자들이 선거운동에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현직들도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이다.

조합장 선거는 법적 선거운동기간이 짧고(13일),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는 공식적인 기회조차 없다 보니 새롭게 조합장에 도전하는 신인에게 여러 모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이 되면 3선 제한에 걸리지 않고 영구 연임도 가능해 일부 지역에선 '직업이 조합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직 조합장의 3선 이상 연임 사례도 있다는 게 조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조합장 출마자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포함)·수산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344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광주·전남은 각각 18곳, 185곳 등 총 203곳이다. 유권자는 광주

3만561명, 전남 42만8279명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 운동 기간은 단 13일뿐이다. 또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정책 대담이나 연설회 및 토론회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직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조합장 예비후보자는 "현직 조합장은 선거기간 전부터 조합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간접 홍보를 펼칠 수 있다"면서 "조합장 도전자도 조합원들에게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지만, 조합원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다. 인맥을 동원해 (조합원의) 집으로라도 찾아가면 가가호호 방문이라 불법이라고 한다"며 불만을 털어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 때부터 제기돼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정책 토론회, 예비후보자 운동기간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현재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묶여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품 등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려다 범죄자로 전락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서만 고발 5건(구속 2건), 경고 1건 등 불법 행위 및 의심 사례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선 고발 7건·수사외 2건·경고 24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광주시 모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4명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예외 규정도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비상임으로 전환된 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현직 조합장의 장기 연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광주·전남 161개 농협조합 중 비상임 조합장 체제 조합은 광주 광산구와 화순·강진 등 모두 31곳으로 19.2%에 이른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4년 임기의 조합장이 임기가 2년에 불과한 상임이사들의 추천 위원장까지 맡다 보니 사실상 조합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품·향응 제공 전남 조합장 입지자 4명 추가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4명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이날 지난해 12월 말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광양지역 모 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하순께 조합원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주고, 다른 조합원에게는 돈봉투를 주려한 해남지역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C씨를 지난 22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같은 달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진도지역 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D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현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법 "상속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

경자유전 예외 인정 첫 판결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정장읍 상대로 낸 농지 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은 신씨는 구청이 '농지법 10조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1·2심에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분을 해야 한다"며 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농사짓지 않는)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 농지를 농업경역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총장과 함께 먹는 '입학식 짜장면'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과 조리학과 신입생들이 26일 2019학년도 입학식을 마친 뒤, 학과 선배들이 만든 짜장면과 탕수육을 맛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 보조금 유용 의혹 광주 시민단체들 "철저히 수사하라"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94) 할머니의 수양딸이 할머니의 보조금·위로금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광주일보 2019년 2월 25일자 7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들이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이하 광주나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 할머니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은 철저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광주나비 측은 "그동안 곽 할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곽 할머니의 명세가 훼손될까 싶어 선별적 공문화하지 못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며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행동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모(여·45) 목사가 수양딸이 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곽 할머니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곽 할머니에게 지원된 보조금과 위로금이 생계와 치료 등에 쓰이지 않고 이 목사의 개인 목적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나비"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 5개 단체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곽 할머니를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발족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왜 욕해" 화난 간부소방관 야산서 후배 둔기 폭행

목포경찰청은 26일 후배 소방관을 야산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전남 모 소방서 A 소방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목포시 한 야산에서 후배 소방관 B씨의 얼굴을 손으로 폭행하고 B씨를 엎드리게 해 엉덩이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같은 소방서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업무상 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했다. A씨는 B씨가 지난달 8일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밤행했다고 진술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빅뱅 승리 '성접대 의혹' 내사

경찰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빅뱅 멤버인 광주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SBS funE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으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힐즈스 유모 대표, 직원인 나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됐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지드래곤 상병 징급 누락 '관심'

○...육군 3사단 백골 부대에 배치돼 군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이 이례적으로 상병 징급 심사에서 누락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병인 권지용은 지난해 징급한 동기들과 달리 사적·체력 측정, 평가 등 징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상병 계급을 달지 못했으며, 징급 지연의 경우 보통 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급된다.

○...육군측은 '권지용이 과도한 휴가 사용으로 징급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때문에 "1년여의 복무기간동안 총 76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며 그 가운데 47일이 병가였다"며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규정상 일반 병사들이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일축. /연합뉴스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수강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오피스텔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울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보증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평가 - 1억2천만원
- 급매 - 7500만원
-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지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저수지 접 1192㎡ 조용한 생활적합 1억2700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주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투자·매도·교환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영업장임 임대중 4억7천
- 남구 월산동 동신대 사회복지관 부근 3층주거지 228㎡ 2억5천
- 강진 선천면 월출산길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양양시설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주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동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도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기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3억 7500
- 장흥군 수문해수육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월드에서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